

번역하는 여성 번역되는 여성: 『부인』·『신여성』 번역 실천의 젠더화된 구조*

윤경애(영남대학교)

1. 서론

개벽사가 발행한 『부인』과 『신여성』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외국의 문학 사상 사회 관련 글을 번역하거나 소개한 여성지였다. 본고는 두 잡지의 번역물 150건을 대상으로 번역자로서 이름을 드러낸 여성과 번역을 통해 소개된 여성 원작자의 위치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번역자와 원작자의 젠더를 장르 시기 게재 형식과 교차하여, 여성의 번역 참여와 저자가시성이 지면에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번역을 창작에 종속시킨 문학장의 위계와 여성의 글쓰기를 주변화한 젠더 위계는 여성 번역가의 활동을 번역사와 여성 문학사 모두에서 드러나기 어렵게 했다(박지영, 2012; Simon, 1996). 그러나 1935년 「여기자군상」의 직능 분류에 ‘번역기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번역이 여성의 매체 노동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김연숙, 2005, p. 101). 여성 번역가의 활동이 대체로 여성지에 실렸다는 선행 연구(김자경, 2023, p. 12)를 고려하면, 개별 번역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그 이름이 어떤 지면과 기획을 통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8758).

드러났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여성을 독자로 삼은 매체가 곧 여성에 의해 생산된 매체는 아니었다. 남성 지식인이 주도한 편집 구조(김수진, 2006a) 속에서 여성은 번역의 매개자이자 번역을 통해 소개되는 저자로 서로 다르게 등장했다. 여기서 ‘번역되는 여성’은 여성 원작자의 텍스트와 저자상이 수용 지면에서 제시되는 방식을 뜻한다. 본고에서 원작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여성적 관점이나 여성해방적 내용의 지표로 삼지는 않는다. 원작자의 젠더는 번역자와 저자의 연결 및 저자 표상 방식을 추적하는 서지적 변수이며, 텍스트의 젠더적 성격은 내용과 번역 형식의 별도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인』 『신여성』 연구는 발행 구조, 여성 담론과 개별 번역가의 활동 등을 밝혀 왔다. 번역 지면의 젠더화를 분석한 김운선(2012)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되, 본고는 추가 발굴호를 포함한 85호의 번역물 전체를 검토하여 여성의 참여를 부재나 소극성보다 게재의 집중과 매개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은 어떤 서명, 원작 선택과 게재를 통해 번역자로 지면에 등장했는가. 둘째, 여성 원작자의 텍스트는 누구를 거쳐 어떤 장르와 형식으로 제시되었는가이다. 본고에서 ‘젠더화된 구조’란 여성 번역가와 여성 원작자라는 두 축의 단순 집계가 아니라, 번역자와 원작자의 젠더가 지면 위에서 서로 다른 층위에 불균등하게 배치되는 양상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세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출현의 층위로, 여성 번역자와 여성 원작자가 어느 시기, 어느 장르, 어느 호에 얼마나 나타나는가이다. 둘째는 이름의 층위로, 번역자와 원작자의 이름이 본명 필명 무기명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표기되어 젠더가 가시화되거나 지워지는가이다. 셋째는 형식의 층위로, 번역이 원제를 병기한 독립 작품으로 실리는가 아니면 소개문과 요약, 논평 속에 삽입되는가이다. 3장은 첫째 층위를 전체 분포로, 4장은 여성 번역자가 등장한 조건을 첫째 둘째 층위에서, 5장은 여성 원작자 텍스트를 두 축의 교차에서, 6장은 셋째 층위를 나이두의 병치 사례로 다루며, 결론에서 각 장의 결과를 세 층위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와 분석 대상 및 방법

2.1 선행 연구

『부인』에서 『신여성』으로 이어지는 잡지 계보와 개벽사의 발행 구조는 이상경(2010)과 정용서(2015a, 2015b)의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 이 연구들은 편집자와 필자의 이동, 잡지의 물적 기반과 성격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식민지 시기 번역의 경로에 대해서는 한기형(2011)이 사상과 문학의 번역이 일본어 중역, 검열, 이중 출판시장의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신여성』의 번역물을 영어 독일어 등의 원전과 조선어 번역 사이의 단선적 관계로 보지 않고 일본어 번역, 번역 선집, 다른 조선어 매체가 개입한 다중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잡지의 번역 지면에서 젠더를 정면으로 제기한 김윤선(2012)은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 전략을 분석하면서, 번역 지면이 남성 편집 주체의 선별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진단과 여성 번역가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본고는 앞의 진단을 공유하되, 뒤의 결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서지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대상 범위이다. 김윤선은 통권 73호 가운데 63호를 대상으로 번역물을 약 100여 편으로 추산했으나, 본 연구에서 케포이북스 영인본 15권과 추가 발굴 완결편 16 17권을 통해 『부인』 14호를 포함한 85호 전체를 검토하여 확인된 번역물은 150건(연재를 통합한 실 작품수 121건)이며 『신여성』만으로도 133건이다. 둘째는 여성 역자의 식별이다. 동 연구는 “『신여성』에서 여성 번역자로 확실한 인물은 김관정, 김수임, 박혜숙 정도”로 보아 전체 필자 대비 6% 정도로 추산했으나, 본고가 확인한 여성 역자의 번역은 이 목록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다. 1924년 2월호에 실린 김명순의 다섯 편(사포 2편, 크리스티나 로세티, 지나이다 기피우스, 리카르다 후흐)은 김윤선의 문예물 목록에 나타나지 않고, 1925년 9월호에서 야마카와 기쿠에의 논설과 라인 전설, 나이두 소개와 시를 옮긴 허정숙은 ‘SJ’라는 표기로만 언급될 뿐이며, 1932년 4월호 ‘이화시첩’의 다섯 사람 가운데 여성 번역자로 헤아려진 인물은 김수임 한 명이다. 셋째는

서지 항목이다. 원작자의 국적과 게재 시점에서 본고의 확인과 어긋나는 항목이 적지 않다. 아일랜드와 덴마크 작가인 골드 스미스와 안데르센이 독일로 기재되어 있고, 「아이다의꽃」의 게재 시점은 중간 이후인 1935년 10월로 제시되어 있다. 고한승의 라인 전설 연작 역시 원작자란이 비어 있는 ‘독일 전설’로 처리되어 있으나, 본고의 확인으로는 스코틀랜드 출신 루이스 스펜스의 『Hero Tales and Legends of the Rhine』에서 발췌해 1924년 7월부터 1925년 9월까지 이어진 다섯 편의 계열이며, 그 가운데 한 편은 허정숙(SKY)의 번역이다. 이러한 대조는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을 동일한 자료 기반 위에서 다시 물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번역 지면이 남성 편집 주체의 선별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핵심 진단은 본고의 계량 결과로도 뒷받침되지만, 여성이 번역의 주체로 서기 어려웠다는 진술은 85호 전수를 놓고 보면 다시 쓰일 필요가 있다.

원작자의 젠더를 축으로 삼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텍스트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같은 형태의 굴절을 반복해서 보고해 왔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구인모는 조선에서 엘렌 케이의 저서가 “단 한 권도 번역되지 않고 소개의 논문만이 중역으로 번역”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생학적 논리와 국민국가 형성의 함의가 결락된 채 연애론으로 축소되었다고 논증하면서, “조선에서 엘렌 케이의 사상은 항상 남성이 여성에게 가르치는 것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정리한다(구인모, 2004, pp. 81-82, p. 92). 콜론타이의 경우에도 조선어 지면에 실린 관련 글의 대부분은 번역이 아니라 남성 필자가 쓴 비판적 독후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된다(서정자, 2004, pp. 9, 18).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 번역 역시 전적으로 남성 지식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김미지는 이를 ‘남성 원저자와 남성 번역자 그리고 남성 수용자’로 이어지는 회로로 규정한다(김미지, 2024, p. 49). 세 사례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경향은, 여성이 쓴 텍스트이거나 여성을 주제로 삼은 텍스트일수록 그 번역은 역자를 밝힌 ‘번역’이 아니라 남성 필자에 의한 ‘소개’와 ‘논평’의 형식으로 조선어 지면에 안착했다는 사실이다. 이 굴절이 여성 원작자의 텍스트에 특유한 것인지, 아니면 베벨의 사례처럼 여성을 주제로 한 남성 원작자의 텍스트에도 나타나는 것인지는 개별 사례 연구로는 판별할 수 없다.

원작자의 젠더를 분석 축으로 독립시켜 한 잡지의 번역 지면 전체에서 매개 형식을 대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젠더와 번역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번역이 중립적인 재현이 아니라 선택과 명명, 생략과 부가, 서문과 제목, 번역자 가시성 등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임을 강조해 왔다(Godard, 2021; Simon, 1996; Spivak, 1993; von Flotow, 1997). 국내 학계에서도 번역을 젠더가 재협상되는 문화적 실천으로 보는 논의가 제기되어 있고(박선주, 2012; 태혜숙, 2013), 박영희의 차페크 번역에 나타난 여성성 표상(김효순, 2018)이나 해방 이후 여성지 『여원』의 번역을 통한 젠더 담론의 유통(장미영, 2012)을 다룬 사례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여자계』의 여성 필자를 살핀 연구(이혜진, 2008)와 메이지기 여성 번역문학을 번역이론으로 재발견한 논의(山出裕子, 2008)는 번역하는 여성이 문학사에서 지워져 온 사정이 조선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고는 이러한 이론을 번역문 내부의 문체적 여성성을 판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번역자 원작자의 가시성, 제목과 소개, 번역의 독립 게재 여부, 원제 병기, 평론 속 삽입 여부와 같은 파라텍스트적 장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Batchelor, 2018; Genette, 1987/1997).

본고가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한 방법론적 선례로서 태혜숙의 연구는 번역과 젠더가 만나는 방식을 원전과 번역의 위계 속에서 번역 자체가 부차화 여성화 되어온 과정을 문제 삼는 ‘번역의 젠더화(gendering translation)’와, 텍스트에 기입된 젠더의 양상에 주목하는 ‘젠더의 번역(gender in translation)’으로 정리한 바 있다(태혜숙, 2013, p. 88). 본고의 ‘번역하는 여성’과 ‘번역되는 여성’은 이 구분을 식민지 조선의 여성지라는 지면에 적용한 것이다.

다만 태혜숙은 두 갈래를 각각 한계로 규정하고, 젠더를 번역의 방법론적 틀 자체에 개입시키는 ‘젠더 번역’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태혜숙, 2013, p. 89). 이 요구는 본고에도 유효하다. 두 축을 나란히 집계하는 데 그친다면 남는 것은 두 개의 인구학적 통계뿐이기 때문이다. 본고가 무게를 두는 것은 두 축이 어긋나는 자리다. 여성 역자가 남성 원작자를 옮긴 1932년 ‘이화시첩’, 남성 역자가 여성 원작자를 옮긴 고사리의 나이두와 손진태의 차플리카, 역자의 이름이 아예 표기되지 않은 35건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에는 미리 답해두어야 할 반론이 있다. 박선주는 번역과 젠

더의 교차가 대개 “‘여성 번역가’라는 또 하나의(단한) 범주”를 만들어 내는데 그쳤고,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이라는 정체성 범주와 원전과 번역본이라는 위계가 오히려 더 뚜렷하게 고정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박선주, 2012, p. 293). 본고의 두 범주는 자료에 앞서 세운 존재론적 전제가 아니라, 지면이 실제로 표기하고 배치한 것을 기록하기 위한 장치다. 본고가 묻는 것은 ‘이 원작자는 여성인가’가 아니라 ‘지면은 이 원작자를 어떻게 표기했는가’이며, 역자 미확인 35건과 원제가 병기되지 않은 항목도 결국이 아니라 그 표기 관행의 일부로 다룬다. 역자의 성별이 번역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전제 또한 세우지 않는다. 권오숙(2012, p. 59, p. 69)이 『오셀로』 여섯 종을 대조한 연구에서 남녀 역자의 선택은 여러 대목에서 젠더선을 넘나들었고, 본 연구 또한 젠더를 장르와 대상 독자, 출판사의 정책 등 여러 변인 가운데 하나로 열거하고자 한다. 같은 이유에서 본고는 원작자가 여성이라는 사실로부터 텍스트의 여성적 성격을 추론하지 않는다. 5장에서 확인하듯 여성 원작자의 텍스트에는 여성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류학 저술과 서정시가 포함되며, 본고가 기록하는 것은 그 텍스트가 ‘여성이 쓴 것’으로 표기된 채 어떤 번역자와 형식을 거쳐 지면에 놓였는가이다.

2.2 분석 대상 및 방법

본고의 분석 대상은 케포이북스가 영인한 『부인 신여성』 전15권(2009)과 추가 발굴 완결편 16 17권(2012)에서 수집한 번역물 150건이다. 영인본 해제(이상경, 2010)의 권호 정리에 따르면 『부인』은 통권 14호(1922.6~1923.8), 『신여성』은 통권 71호(전기 1923.9~1926.10의 31호, 복간 후 1931.1~1934.6의 40호)로 두 잡지의 발행 호수는 함께 85호이며, 본고의 검토 범위는 이 85호 전체이다. 2009년 영인 당시 결질이었던 10개 호(『부인』 제7 9 13 14호, 『신여성』 제33 37 39 65 70 71호)는 추가 발굴 완결편으로 보완되었고, 이 보완 호에 수록된 번역물도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각 레코드에는 번역 제목, 원작명, 장르, 원작자, 원작자 젠더, 분석용 국적, 지면의 역자 표기, 정규화한 역자명, 역자 젠더, 잡지명, 권호와 발행 연월을 기록하였다. 원문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을 거친 결과, 150건 가운데 원작명은 126건(84.0%), 원작자는 133건(88.7%)을 확인하였으며, 두 항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는 120건(80.0%)이었

다.¹⁾

분석 방법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된다. 첫째, 번역 건수는 두 방식으로 제시한다. 총계재건수는 연재의 각 회차를 독립 레코드로 계산한 150건이며, 실작품수는 동일한 역자가 동일한 원작을 분할 번역한 연재를 한 작품으로 통합한 121건이다. 동일 원작이라도 역자가 다르면 별도 번역으로 계산하고, 하나의 원저에서 서로 독립된 이야기를 발췌한 경우에도 별개 작품으로 계산하였다. 같은 원리에서 동일 원저의 번역이라도 연재 표제와 게재 시기가 뚜렷이 분리된 별개의 연재 기획은 별개 작품으로 계산하였다. 양명이 옮긴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의 1925년 연작과 1926년의 「유물사관으로 본 부녀의 사회적 지위」 연작이 이에 해당한다. 이 규칙에 따라 14종 43회의 연재가 14작품으로 통합되어 총 29건이 감소한다. 분석은 독자가 매호 접한 번역의 노출량을 보여주는 총계재건수를 기본으로 하되, 주요 표에는 실작품수를 병기한다.

둘째, 역자 귀속은 확정과 추정을 구분하였다. ‘고사리’는 고한승과 고한용이 별개의 인물임을 규명한 박금숙과 홍창수(2012)의 고증을 전제로, 장인수(2007)와 장이지(2011)를 따라 김억으로 처리하되, 이 귀속을 유보한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연구생(研究生)’은 동일 원작의 후속 연재가 양명 명의로 이어진다는 지면 연속성에 근거하여 분석상 양명으로 묶었지만, 이는 확정 고증이 아니라 유력한 추정이다. 이 외에 본명 미상의 경우는 미확인으로 분류하였다. 여성 역자 비율은 이 기준에서 보자면 확인 가능한 최솟값인 셈이다. 원작자의 국적은 작품 소재가 아니라 원작자의 출신 문화적 배경을 기준으로 정규화하였다. 따라서 라인 전설을 쓴 스코틀랜드 출신 루이스 스펜스의 번역은 작품 소재가 독일이더라도 분석상 영국으로 집계하였다.

셋째, ‘번역’으로 판단한 경계의 경우, 본고는 지면에 ‘역(譯)’ 또는 그에 준하는 표지가 있거나 원작과의 대응이 확인되는 텍스트를 번역으로 계산하고, 외국의 사상과 인물을 다루되 번역임이 표지되지 않고 원작과의 대응도 확인되지 않는 소개 기사와 논설은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이 기준은 판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만큼 경계에 놓인 텍스트를 배

1) 전체 번역 목록과 실작품 목록은 부록으로 제시한다.

제할 우려도 있다. 본고의 150건은 이 경계를 좁게 잡은 결과이며, 번역 텍스트의 비중은 본고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3. 번역 지면의 구조와 시기별 변화

3.1 번역자와 원작자의 젠더 분포

분석 시기는 잡지 표제와 발행의 단절을 고려하여 전기 『부인』(1922~1923), 중기 『신여성』(1923~1926), 후기 복간 『신여성』(1931~1934)으로 나누었다. 전기 17건, 중기 80건, 후기 53건으로, 번역물의 절반 이상이 중기에 집중된다. 여성 역자는 전기에 확인되지 않다가 중기 9건(11.3%), 후기 5건(9.4%)으로 확인된다. 여성 원작자는 전기 2건(11.8%), 중기 16건(20.0%), 후기 2건(3.8%)이다. 여성 역자의 비중은 중기와 후기에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 여성 원작자의 비중은 복간 이후 줄어드는데, 이는 후기의 변화가 여성 번역자의 감소와 같은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기의 여성 원작자 2건, 후기의 여성 역자 5건과 여성 원작자 2건처럼 절대 건수가 한 자릿수인 항목에서는 한두 건의 가감만으로 백분율이 크게 흔들린다. 이하에서 제시하는 비율은 모두 이 점을 전제로, 시기 간 경향을 가늠하는 지표로만 사용한다.

표 1
시기별 번역물 현황 및 역자 젠더 분포

시기	총계제/실작품	여성 역자	남성 역자	미확인
전기: 『부인』	17 / 14	0 (0.0%)	14 / 11 (82.4%)	3 / 3 (17.6%)
중기: 『신여성』	80 / 64	9 / 9 (11.3%)	53 / 38 (66.3%)	18 / 17 (22.5%)
후기: 복간 『신여성』	53 / 43	5 / 5 (9.4%)	34 / 28 (64.2%)	14 / 10 (26.4%)
합계	150 / 121	14 / 14 (9.3%)	101 / 77 (67.3%)	35 / 30 (23.3%)

백분율은 총계재건수 기준이며 미확인은 본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추정 단계에 머문 경우다.

표 2

시기별 번역물 현황 및 원작자 젠더 분포

시기	총계재/실작품	여성 원작자	남성 원작자	미확인
전기: 『부인』	17 / 14	2 / 2 (11.8%)	12 / 10 (70.6%)	3 / 2 (17.6%)
중기: 『신여성』	80 / 64	16 / 13 (20.0%)	52 / 41 (65.0%)	12 / 10 (15.0%)
후기: 복간 『신여성』	53 / 43	2 / 2 (3.8%)	48 / 38 (90.6%)	3 / 3 (5.7%)
합계	150 / 121	20 / 17 (13.3%)	112 / 89 (74.7%)	18 / 15 (12.0%)

여성 역자는 총계재건수와 실작품수가 모두 14건이고, 여성 원작자는 연재를 통합하면 20건에서 17건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중기에 여성 원작자 텍스트가 집중되고 후기에는 감소한다는 핵심 경향은 연재 회차의 중복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다만 미확인 역자가 35건(23.3%)에 이르므로, 여성 번역자의 정확한 비율을 확정하기보다는 현재 확인 가능한 최소 비율로 해석해야 한다. 미확인 35건이 여성 역자 14건을 넘어서는 사실은 이수치의 해석 범위를 규정한다. 미확인은 확인 불명의 필명이나 ‘일기자(一記者)’와 같은 무기명 표기의 경우이므로, 여성 역자의 실제 비율은 확인된 최솟값 9.3%와 미확인 전부를 여성으로 가정한 최댓값 32.7%(49건) 사이에 놓이며, 이 범위의 폭은 필명 관행이 역자 젠더의 가시성을 제약한 정도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분포가 여성지에 특유한 것인지는 『개벽』 등 동시대 일반 잡지의 번역 지면과 같은 기준으로 견주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본고의 수치는 그 비교의 기준점으로 제시한다.

3.2 장르와 국적의 재편

전체 번역물에서 소설은 63건(42.0%), 시는 41건(27.3%)으로 두 장르가 약 70%를 차지한다. 중기에는 이론 논설 평론 14건이 집중되어 문학과 사회

이론이 함께 번역되었지만, 후기에는 해당 장르가 1건으로 줄고 소설과 시가 45건으로 후기 번역물의 84.9%를 차지한다. 다만, 중기의 이론 논설 평론 14건은 실작품수로는 6건이어서, 베벨과 차플리카 연재가 회차로 반복되며 만들어낸 수치에 가깝다. 또한 후기에 이 장르가 사라진 데에는 편집진 교체와 검열, 잡지 경영과 독자 전략의 변화가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표 3
장르별 분포 및 시기별 현황

장르	총계제/실작품	전기	중기	후기
소설	63 / 51 (42.0%)	3 / 2	37 / 32	23 / 17
시	41 / 41 (27.3%)	5	14	22
이론/논설/평론	16 / 8 (10.7%)	1	14 / 6	1
동화	11 / 6 (7.3%)	4 / 3	2	5 / 1
희곡	7 / 5 (4.7%)	2 / 1	4 / 3	1
기타	12 / 10 (8.0%)	2	9 / 7	1
합계	150 / 121	17 / 14	80 / 64	53 / 43

원작자의 국적에서는 독일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 17건, 영국 15건, 프랑스 12건이 뒤를 잇는다. 전반적으로 유럽 텍스트가 중심이지만 인도와 일본, 우크라이나, 미국의 작품도 포함된다. 특히 중기에는 사포, 에로센코, 야마카와 기쿠에, 마리아 차플리카, 사로지니 나이두 등의 텍스트가 함께 등장하여 지역과 장르가 넓어진다. 후기에는 독일 러시아 영국이 53건 중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구성이 재편된다. 인도 텍스트는 후기에도 윤석중이 옮긴 타고르의 시 4건이 확인되므로 지역 차원의 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인도 번역의 구성은 달라진다. 중기의 인도 관련 5건이 모두 나이두의 시와 인물 소개였던 데 비해, 후기의 4건은 모두 타고르의 시다. 두 시기의 해당 항목이 각각 다섯 건과 네 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대비를 잡지 전체의 경향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원작자 젠더의 변화가 편집진의 선택인지 원고 확보 여건의 결과인지도 판별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후기의 재편이 원작자 젠더 구성의 변동과 겹쳐 나타난다는 사실 정도다.

3.3 시 장르와 여성 번역자의 가시성

여성 역자의 전체 비율은 9.3%이지만 장르별 편차가 크다. 소설 63건 가운데 여성 역자의 번역은 1건(1.6%)에 불과한 반면, 시 41건 가운데 11건(26.8%)이 여성 역자의 번역이다. 다만 이 편차를 곧바로 ‘여성 번역자에게 열려 있던 장르는 시였다’라는 식의 구조적 규칙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여성 역자의 시 번역 11건은 1924년 2월호 김명순의 5편, 1932년 4월호 ‘이화시첩’의 5편, 1925년 9월호 허정숙의 1편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세 개의 지면, 그중에서도 두 차례의 묶음 기획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역자의 번역 14건 전체를 보아도 1924년 2월, 1925년 9월, 1925년 11월, 1932년 4월의 네 호뿐이다. 비교 대상인 남성 역자의 시 번역 27건 가운데 14건이 김억 한 사람의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시 장르의 젠더 분포는 독립적인 다수 사례가 누적된 결과가 아니라 소수의 번역자와 기획 지면이 만들어낸 분포에 가깝다. 따라서 이 수치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성 번역자가 지면에 등장할 때 그 형식이 대체로 시 묶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분포는 젠더화된 구조의 첫째 층위, 곧 여성 번역자와 여성 원작자의 출현이 시기 장르 호에 걸쳐 불균등했음을 보여준다.

표 4

시 번역 41건의 젠더 분포

구분	여성	남성	미확인
역자	11 (26.8%)	27 (65.9%)	3 (7.3%)
원작자	12 (29.3%)	29 (70.7%)	0 (0.0%)

4. 번역하는 여성: 상이한 세 유형의 번역 주체

4.1 김명순: 여성 시인의 계보와 문학적 자기 위치화

『신여성』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여성 번역자는 1924년 2월호의 김명순이

다. 물론 여성 번역가의 등장 자체는 이보다 앞서며, 1910년대 잡지 『우리의 가정』에서 이미 여성 번역가의 연재 활동이 확인된 바 있다(김민지, 2022). 김명순은 한 호에 사포 2편, 크리스티나 로세티, 지나이다 기피우스, 리카르다 후흐의 시를 각각 1편씩 모두 5편 번역했다. 여성 번역자의 첫 등장이 단편 한 편이 아니라 여성 시인만으로 구성된 묶음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대 그리스의 사포에서 19세기 영국과 20세기 초 러시아 독일의 여성 시인으로 이어지는 배열은, 그 선정 주체가 누구였든 결과적으로 세계 여성 시의 시간적 공간적 계보로 읽힐 수 있는 구성을 이룬다.

표 5

김명순의 번역 목록(1924년 2월호)

번역 제목	원작자(국적)	원작
바다에 가려고	크리스티나 로세티(영국)	One Foot on Sea, and One on Shore
鄉愁	리카르다 후흐(독일)	Heimweh
물거말이	지나이다 기피우스(러시아)	Пьявки(거머리)
夕映의淸光을불너서	사포(그리스)	104a(Voigt)
夜半	사포(그리스)	168B(Voigt)

다만 이 배열을 김명순 개인의 자율적 기획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호에 김동성이 번역한 독일 여성 참정권 운동가 아델 슈라이버-크리거의 연설문이 실렸다는 점은 편집부 차원의 ‘세계 여성’ 집중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자료로는 작품 선정의 주체가 김명순인지 편집부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다섯 편이 김명순의 이름 아래 한 묶음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독자에게 그를 세계 여성 시의 매개자로 가시화했다. 번역은 김명순의 창작 활동과 분리된 부업이 아니라, 자신이 속할 문학적 계보를 구성하는 하나의 자기 위치화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박지영, 2012; 김자경, 2023). 김명순이 하우스프트만의 희곡을 창작 소설로 전유하는 문화번역을 수행했다는 논의(신혜수, 2016)까지 고려하면, 이 여성 시인 묶음 번역은 그의 번역 창작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계보 만들기의 한 국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사포 번역의 제목은 일본어 번역 선집의 흔적을 보인다. 원제 없는 단편시가 「夕映の清光을불너서」와 「夜半」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것은 히구치(樋口, 1921, p. 52)의 저서에 실린 우에다 빈(上田敏)의 번역 「夕づつの清光を歌ひて(저녁별의 맑은 빛을 노래하며)」, 고바야시(小林, 1912, p. 186)가 번역한 「夜半(깊은 밤)」을 중역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4.2 허정숙: 번역, 편집과 사회주의 여성 담론

허정숙의 본명은 허정자(許貞子)이며, 1925년 9월호와 11월호에 통용명 ‘허정숙’과 필명 ‘SKY/스카이’를 사용하여 네 편을 번역했다. 9월호에서는 야마카와 기쿠에의 여성사 논설, 루이스 스펜스의 라인 전설, 사로지니 나이 두 소개와 시 번역을, 11월호에서는 일본 잡지 『女性改造(여성개조)』에서 가져온 「未來의 女性이 되여라」를 실었다. 이 구성은 허정숙의 번역이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이론, 소설, 시와 인물 소개를 횡단했음을 보여준다.

허정숙(1902~1991)은 일본 유학과 상하이 체류를 거쳐 1924년 조선여성동우회 결성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였다. 1925년 1월부터 5월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일한 뒤 개벽사로 옮겨 『신여성』의 첫 부인기자가 되었으며, 그 이름은 제18호(1925년 8월호)부터 제22호(1926년 1월호)까지 지면에서 확인된다(강혜경, 2007; 김수자, 2015; 이상경, 2010, 2018; 이소희, 2015). 개벽사 입사 시점은 1925년 여름 무렵(이상경, 2018)과 같은 해 10월 경(강혜경, 2007)으로 기록에 시차가 있으나,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1925년 9월호 전후가 허정숙의 개벽사 활동 개시기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1920년대의 여기자는 저널리즘 장에 새로 등장한 전문직 여성 집단이었고(김연숙, 2005), 부인기자라는 직함은 허정숙을 기고자와 편집자 사이의 위치에 놓았다. 편집 책임은 남성 편집진이 맡고 있었으므로(김수진, 2006a; 정용서, 2015a) 부인기자의 권한이 지면 전체에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자 군상」은 허정숙이 개벽사에서 『신여성』 책임을 맡아 논문 집필과 편집, 인쇄 교정까지 직접 했다고 전하며, 실제로 그는 1925년 11월호 ‘번민호’의 특집 편집을 맡아 ‘편집인’ 명의의 권두언과 논설, 번역을 잇달아 실었다(이소희, 2015, pp. 118-123). 즉 허정숙은 조선 여성을 근대적 주체로 호

명하는 담론 구성에 직접 관여한 편집 인력이었고(김수자, 2015), 그의 번역은 원고를 넘기는 기고자의 행위를 넘어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지면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편집 실천과 겹친다. 야마카와 기쿠에와 『女性改造』의 번역은 일본을 경유한 사회주의 여성 담론의 수용이고, 나이두 소개는 여성 시인을 인도 민족운동과 결합해 제시한 작업으로, 여성문제를 계급 민족 문제와 결합해 사고한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의 맥락(김경일, 2005; 안미정, 2013)과 맞물린다. 다만 1925년 9월호의 집중 구성이 허정숙 개인의 의도에서 직접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허정숙의 편집 참여시기와 지면의 변화가 겹친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서명 사용도 주목할 만하다. 허정숙은 네 편 가운데 야마카와 기쿠에의 논설에만 통용명을 쓰고, 나머지 세 편에는 성별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SKY/스카이’를 사용했다. ‘SKY’는 그가 동아일보 기고에 썼던 필명 ‘수카이(秀嘉伊)’의 영문 머리글자로(이소희, 2015, p. 109), 지면만으로는 성별을 알 수 없는 표기였다. 필명 사용 자체는 여성 번역자에게 특유한 현상이 아니며, 小波 SP생 몽견초(방정환), 星園, 抱宇, 赤頭市처럼 남성 미확인 역자의 필명이 번역 지면 전체에 걸쳐있고, 식민지 시기 언론인의 필명 사용은 검열 대응, 지면 운용, 공적 정체성 관리 등 복합적 요인 속에서 이루어졌다(김은규, 2019). 본고가 이 문제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필명이 역자를 식별하는 기능을 넘어 역자의 젠더를 지면에서 지우는 효과, 곧 젠더화된 구조의 둘째 층위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SKY’로 실린 세 편은 선행 연구의 고증이 없었다면 미확인으로 분류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김운선(2012)에서 허정숙은 여성 번역자로 헤아려지지 않았다. <표 1>의 미확인 35건 안에 여성 번역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성 역자 비율을 최소값으로 다루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다만 필명으로 발표한 세 편에 『女性改造』에서 옮긴 논설 「未來의女性이되여라」(1925. 11)도 포함되므로, 논설에는 통용명을, 문학에는 필명을 썼다는 대응은 성립하지 않으며 통용명이 한 편에 그친 이유는 현재 자료로 판별할 수 없다.

표 6

허정숙의 번역 목록

연월	장르	번역 제목	원작자/출처
1925.9	이론 논설	「女性을中心으로한社會相의史的變遷」	야마카와 기쿠에, 『婦人の勝利』 요약
1925.9	소설	「라인江의傳說神話 로-레리어의 시가」	루이스 스펜스, Lorelei
1925.9	시 평론	「大印度의精華 女流詩人 사로지니 · 나이두女史」	사로지니 나이두, 시 1편 삽입
1925.11	이론 논설	「未來의 女性이 되여라」	『女性改造』에서 번역

4.3 1932년 이화여전 학생들: 특집 지면의 집단 번역

복간 이후 여성 번역자는 1932년 4월호의 ‘이화시첩’ 지면에서 다시 집단적으로 등장한다. 박길래, 최기득, 장금선, 이달남, 김수임 다섯 사람이 각각 한 편씩 옮겼으며, 원작은 존 매크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시 각 1편과 엘프리드 테니슨의 시 2편이다. 다섯 사람을 이화여전 소속으로 보는 것은 ‘이화시첩’이라는 코너명과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으로 알려진 김수임의 이력에 근거한 판단이며, 나머지 네 사람의 학적은 본고에서 별도로 고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다섯 편의 장르와 원작 언어권이 균일하다는 점은 학교의 영미시 교육과 잡지의 지면 기획이 결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 지면은 이후 호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므로, 잡지가 상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로 볼 수는 없다. 즉 특정 학교 학생들의 번역을 한 호에 묶어 실은 일회성 특집 기획이라 할 수 있다.

표 7

이화여전 학생들의 번역 목록(1932년 4월호)

역자	번역 제목	원작자(국적)	원작
박길래(朴吉來)	「플랜더-쓰戰地」	존 매크래(캐나다)	In Flanders Fields
최기득(崔奇得)	「鎮魂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영국)	Requiem

장금선(張金仙)	「無題」	앨프리드 테니슨(영국)	Tears, Idle Tears
이달남(李達男)	「깨여저라 오!바다여」	앨프리드 테니슨(영국)	Break, Break, Break
김수임(金壽任)	「세 그림자」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영국)	Three Shadows

근대 문학 장은 학교 교육, 미디어의 독자투고와 현상문예, 편집자 네트워크를 통해 제도화되었고, 여성의 읽고 쓰기 역시 그 제도 안에서 계몽되는 동시에 성차의 질서에 따라 관리되었다(김경연, 2009). 남성 문인의 번역과 등단이 학교 문예지 편집자 네트워크를 경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화여전 학생들의 번역 역시 학교의 영미시 교육이라는 제도적 훈련을 배경으로 하되, 그 자체는 제도로써 반복된 번역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적 지면에 등장한 행위였다. 그리고 『신여성』이 여학생 독자의 문학 열망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해 온 매체였다는 점(김연숙, 2022)을 고려하면, ‘이화시첩’은 여학생의 문학 열망이 번역이라는 공인된 형식을 통해 지면화된 사례로 읽을 수 있다. 다만 김명순 허정숙의 번역처럼 여성 원작자와의 선택적 연대나 사회 이론의 매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복간기에 확인되는 여성 번역자가 이 한 호의 학생 특집에 국한된다는 점은, 잡지가 여성 번역자를 받아들인 통로가 독립적 여성 문인 운동가의 상시적 기고보다 교육기관이 보증하는 집단을 특집 기획으로 신는 쪽으로 좁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한 호의 다섯 건에서 끌어낸 관찰이므로 복간기 전체의 편집 방침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두 가지 단서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첫째, 1934년 6월호 「로미오와 줄리엣」의 역자 이명애(李明愛)는 표기명으로는 여성으로 추정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본고의 집계에서는 미확인인으로 분류하였다. 후기의 여성 번역자 5건 역시 확인 가능한 최소값인 셈이다. 둘째, 복간기 『신여성』에는 송계월과 같은 여성 기자가 활동하고 있었으나(김수자, 2015), 그들의 이름은 번역 지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 편집 인력의 존재가 곧 여성 번역자 여성 원작자의 지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간기의 상황은 허정숙의 편집 참여와 여성 원작자 집중

이 겹쳤던 중기와 대비된다. 다만 두 시기 모두 사례의 수가 적으므로, 이 대비 역시 인과가 아니라 함께 관찰되는 정황으로만 다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명순, 허정숙, 이화여전 학생들은 모두 여성 번역자이지만 번역의 조건과 의미는 서로 다르다. 김명순의 번역은 여성 시인 계보와 문학적 자기 위치화를, 허정숙의 번역은 사회주의 여성 담론 민족 문제 편집 활동의 결합을, 이화여전 학생들의 번역은 학교 교육과 특집 지면이 결합한 일회성 집단 등장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세 사례를 겹쳐 놓으면 본고의 첫 번째 질문인 여성이 어떤 조건에서 번역의 주체로 등장했는가에 대한 답이 네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신원의 조건으로, 여성 번역자는 기성 작가(김명순), 편집부 소속 기자(허정숙), 교육기관이 소속을 보증한 학생(이화여전)이라는 세 유형으로만 확인되며 여성 역자 14건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둘째, 장르의 조건으로, 14건 가운데 11건이 시였고 소설 63건 중 여성 역자의 번역은 1건에 그쳤다. 셋째, 지면의 조건으로, 여성 번역자는 매호 산발적으로 기고한 것이 아니라 1924년 2월호의 여성 시인 묶음, 1925년 9월호의 집중 구성, 1932년 4월호의 ‘이화시첩’처럼 편집부가 기획한 묶음 지면을 통해 등장했다. 넷째, 이름의 조건으로, 여성 번역자의 이름은 필명 관행 속에서 젠더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표기될 수 있었고 이는 미확인 35건과 맞물려 여성 번역자의 가시성을 낮추었다. 이 네 조건이 젠더화된 구조의 첫째 층위(출현)와 둘째 층위(이름)에서 여성 번역자의 자리를 규정했다.

5. 번역되는 여성: 여성 원작자 선택과 남성 매개

5.1 여성 원작자 텍스트의 구성

여성 원작자의 번역은 총 20건, 실작품수 17건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한다. 장르별로는 시 12건으로 가장 많고, 이론 논설 평론 6건, 동화 1건, 연설 1건이다. 원작자의 국적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스 일본 인도 폴란드 불가리아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내용 구성 면에서도 여성 원작자의 작

품은 여성문제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 차플리카의 인류학 저술처럼 여성 저자의 학술적 권위가 전면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포 로세티 나이 두 티즈데일의 시처럼 문학적 성취가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시기별 차이도 눈에 띈다. 전기의 여성 원작자 텍스트는 동화와 교육론에 머물지만, 중기에는 참정권 연설, 사회주의 페미니즘, 인류학과 시로 장르가 넓어진다. 후기에는 여성 원작자 텍스트가 에브게니아 마르스와 사라 티즈데일의 시 두 편으로 줄어든다. 다만 전기와 후기의 해당 텍스트가 각각 2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대비는 시기별 장르 구성의 법칙이라기보다 중기의 상대적 다양성을 부각하는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기는 여성이 쓴 문학뿐 아니라 여성이 생산한 지식과 정치적 발언이 번역 지면에 함께 들어온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5.2 두 집중호와 편집적 배치

여성 원작자 번역 20건 가운데 12건인 60.0%가 1924년 2월호와 1925년 9월호에 집중되어 있다. 이 수치는 여성 원작자의 번역이 매호 고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지면에 묶여 제시되었음을 보여준다. 1924년 2월호에는 김명순의 여성 시인 번역 5편과 김동성이 옮긴 여성 참정권 운동가의 연설이 함께 실렸다. 1925년 9월호에는 나이두 시 5편, 야마카와 기쿠에의 논설, 베벨의 여성론 초역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이러한 집중은 편집적 선택의 존재를 시사한다. 특히 1925년 9월호는 허정숙이 개벽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여성 편집 인력의 참여와 여성 원작자 텍스트의 집중이 같은 시기에 관찰되는 것은 전체 85호 가운데 이 시기뿐이며, 이는 여성 편집 주체와 여성 원작자 선택의 연관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 호에서 여성 원작자의 텍스트가 균일한 형식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같은 원작자 나이두가 남성 번역자의 독립 시 번역과 여성 번역자의 인물 소개 속 삽입이라는 두 형식으로 나란히 실렸다는 사실은, 여성 원작자의 지면이 편집적 선택의 산물인 동시에 서로 다른 매개 형식이 경합하는 자리였음을 보여준다.

5.3 여성 원작자 텍스트의 번역자들

총계재건수 기준 여성 원작자 텍스트 20건 가운데 여성 번역자가 담당한 것은 7건(35.0%), 남성 번역자는 12건(60.0%), 미확인은 1건(5.0%)이다. 남성 번역자 12건 가운데 8건은 고사리의 나이두 4편과 손진태의 차플리카 연재 4회이다. 연재를 통합한 실작품수 17건으로 다시 계산하면 남성 번역자 9건(52.9%), 여성 번역자 7건(41.2%), 미확인 1건(5.9%)이 되어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다. 따라서 여성 원작자 텍스트의 다수가 남성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진술은 산정 방식에 따라 폭이 달라지는 관찰이며, 그럼에도 여성 원작자의 목소리가 여성 번역자에게 독점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표 8

여성 원작자 텍스트의 번역 목록

연월	원작자(국적)	번역 제목	역자(본명)	역자 성별
1922.8	피비 캐리(미국)	「귀한 자녀를 두신 어머님에게」	一記者 (미상)	미확인
1923.7	엘리자베스 파머 피바디(미국)	「이 試驗에 及第만 하면 그는 智能 完全한 어린이」	김기전	남성
1924.2	아텔 슈라이버- 크리거(독일)	「독일의 신녀자 스라버 녀사」	김동성	남성
1924.2	크리스티나 로세티(영국)	「바다에 가려고」	김명순	여성
1924.2	리카르다 후흐(독일)	「鄉愁」	김명순	여성
1924.2	지나이다 기피우스 (러시아)	「물거말이」	김명순	여성
1924.2	사포(그리스)	「夕映의淸光을불너서」 「夜半」(2편)	김명순	여성
1925.9	야마카와 기쿠에(일본)	「女性을中心으로한社會相의史 的變遷」	허정숙	여성

1925.9	사로지니 나이두(인도)	「가을노래」 「습안에서」 「베스자 는이들」 「驕軍들」(4편)	고사리 (김억)	남성
1925.9	사로지니 나이두(인도)	「大印度의精華 女流詩人 사로지니 · 나이두女史」 (시 1편 삽입)	스카이 (허정숙)	여성
1926.1~5	마리아 차플리카 (폴란드)	「西伯利亞 各民族의 結婚型式」(연재4회)	손진태	남성
1931.4	에브게니아 마르스 (불가리아)	「바다가에서」	김안서 (김억)	남성
1931.4	사라 티즈테일(미국)	「四月의 노래」	이하운	남성

<표 8>에서 여성 번역자가 옮긴 여성 원작자 텍스트 7건은 김명순 5건과 허정숙 2건이다. 이 사실을 따로 짚는 이유는 두 축의 교차를 젠더 연대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여성 번역자 14건 가운데 절반이 여성 원작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수치는 남성 번역자 101건 가운데 12건(11.9%)보다 훨씬 높아 표면상 선택적 친연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7건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고 이화여전 학생 5명의 번역은 모두 남성 원작자였으므로, 이 친연성은 여성 번역자 일반의 속성이 아니라 김명순의 문학적 계보 의식과 허정숙의 정치적 편집적 관심이라는 개별 행위자의 기획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두 축의 연결은 젠더 동일성의 자동적 효과가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 있던 여성 번역자가 실행한 선택이었으며, ‘번역되는 여성’의 지면은 여성 번역자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5.4 복간 이후의 감소와 설명의 한계

중기 16건이던 여성 원작자 번역은 후기 2건으로 감소한다. 중기 여성 원작자 텍스트 가운데 5건이 이론 논설 평론이었는데, 이 장르 자체가 후기에 14건에서 1건으로 사라지면서 함께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시 번역은 후기에 14건에서 22건으로 오히려 늘었으므로, 지면이 줄어든 장르에서만 여

성 원작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면이 늘어난 장르 안에서도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의 변화를 장르 재편의 부수적 결과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감소의 원인을 편집진의 젠더의식 하나로 돌릴 수 없다. 개벽사의 경영 조건, 편집진의 잦은 교체, 검열과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약화, 잡지의 대중 오락 지향, 원고 확보 네트워크의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김경일, 2005; 정용서, 2015b). 특히 『개벽』 폐간 전후 개벽사 잡지들이 놓여 있던 검열 체제와 미디어 환경의 변동(한기형, 2005), 그리고 여성담론의 생산 자체가 식민지적 구조에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김수진, 2006a)을 고려하면, 여성 원작자 지면의 축소는 편집진 개인의 선택 이전에 매체 환경 전체의 변동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건 변화와 여성 원작자의 지면 감소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5장에서 확인한 것은 출현의 층위에서 여성 원작자 텍스트가 특정 시기와 지면에 집중되었다는 점, 그리고 형식의 층위에서 그 텍스트가 번역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매개 형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며, 후자를 6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6. 사로지니 나이두: 병치된 두 번역

6.1 같은 원작자, 다른 매개 형식

1925년 9월호는 동일한 여성 원작자 사로지니 나이두를 두 번역자가 같은 호에서 각각 제시한 유일한 사례다. 고사리(김억)는 『The Golden Threshold』(1905)에 실린 ‘Autumn Song’, ‘In the Forest’, ‘Indian Weavers’, ‘Palanquin-Bearers’ 네 편을 독립된 시 번역으로 실었다. 영문 원제를 병기하고 시를 연속 배치하여 나이두를 작품의 저자로 가시화한 형식이다. 반면 스카이(허정숙)는 「大印度의精華 女流詩人 사로지니 · 나이두女史」라는 인물 소개 안에 ‘The Joy of the Springtime’ 번역을 삽입했다. 이 형식에서 시는 독립 작품이 아니라 나이두의 생애와 정치적 활동을 설명하는 증거로 기능한다.

표 9

김억과 허정숙의 나이두 번역 비교

항목	김억(고사리)	허정숙(스카이)
원작 시집	The Golden Threshold(1905)	The Bird of Time(1912)
번역 편수	4편	1편
게재 형식	시 독립 게재	인물 소개 논평 속 삽입
영문 원제	4편 모두 병기	병기하지 않음
주요 소재	가을 숲 직공 가마꾼	봄날의 서정
나이두의 표상	서정시의 저자	시인이자 민족운동에 나선 여성

6.2 김억: 독립 작품으로서의 나이두

김억의 번역은 네 편의 원제를 병기하고 시 자체를 중심에 놓는다. ‘가을노래’와 ‘숲안에서’는 자연의 계절감과 감각을, ‘베짜는이들’과 ‘驕軍들’은 노동하는 인물의 움직임과 노래를 전면에 둔다. 다만 네 편의 선택 주체를 김억 개인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이상경(2018)은 고사리 번역에 번역자의 부기가 전혀 없고 ‘교군들’을 제외한 세 편이 김억이 이전에 선호하던 사랑시 계열과 다르다는 점에서, “시를 선택하는 데에는 편집부원인 허정숙의 견해가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¹⁾ 이 추정을 받아들이면 1925년 9월호의 병치는 두 번역자의 대비를 넘어, 편집 주체가 두 형식의 나이두를 함께 배치한 지면 기획으로 읽을 여지도 있다. 실제로 9월호가 고른 네 편은, 허정숙 자신의 소개문 표현을 빌리면 “괴로움과 인종(忍從) 가운데서도 행복과 광명을 잃지 않는” 굳센 삶을 노래한 시들에 가깝다(이상경, 2018, p. 207). 어느 경우든 지면에 구현된 선택은 나이두를 인도 민족운동가보다 영어 서정시의 작가로 소개한다. 실제로 나이두는 런던 문단을 통해 등단한 식민지 출신 영어 시인으로, 제국의 문학 제도와 식민지 민족주

1) 이상경은 나이두의 시 4편의 번역가가 허정숙이라 기술하고 각주를 통해 ‘고사리는 김억의 필명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였으나, 김억이 고사리라는 필명으로 동 잡지에서 수 편의 글을 기고한 점, 고사리가 여러 연구에서 김억의 필명으로 밝혀진 점을 들어, 본 논문에서는 김억으로 판단하였다.

의 사이에서 수용된 작가였다(Marx, 2004; Snaith, 2014). 김억은 근대 최초의 번역시집 『오뇌의 무도』(1921)를 펴낸 이래 에스페란토를 매개로 한 중역까지 포함해 세계시 번역을 지속해 온 대표적 시인 번역가였다(구인모, 2021). 나이두와의 관계도 일회적이지 않았다. 김억은 1922년 7월 『개벽』에서 타고르와 나란히 나이두의 시를 「실제(失題)」 묶음으로 옮겨 나이두를 조선에 처음 소개한 번역자였고, 『영대』(1924.12~1925.1)에서도 나이두의 서정시를 연속 소개하면서 자신은 나이두의 개인사가 아니라 “오로지 시 세계”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나이두 이해가 첫 시집에 서문을 쓴 상징주의 비평가 아서 시몬스의 관점에 기대어 있었다는 지적(이상경, 2018)을 고려하면, 1925년 9월호의 네 편 역시 서정시인 나이두라는 일관된 매개 방식의 연장이며, 나이두는 그의 번역 지면에서 문학적 레퍼토리의 일부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 형식을 비정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도 직공과 가마꾼의 노동을 노래한 시에는 식민지 현실과 계급적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제 병기와 독립 계제는 식민지 여성 시인을 세계문학의 저자로 승인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억이 허정숙과 달리 파라텍스트를 통해 나이두의 정치적 생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자가 먼저 접하는 것은 시인으로서의 나이두다.

6.3 허정숙: 시인을 정치적 인물로 맥락화하기

허정숙의 글은 나이두를 갠지스강과 인도의 자연에서 태어난 시적 존재로 소개한 뒤, 시 한 편을 번역해 삽입하고, 마지막에는 시의 뜻을 놓고 민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인물로 전환시킨다. “그는 시의 붓끝으로서 인도를 찬미하는 이보다 그의 모든 정력을 다하고 몸을 바쳐 직접 민중을 위하여 일하려고 나섰습니다”라는 결말은 나이두의 문학을 민족운동의 서사 속에 배치한다. 여기서 번역된 시는 작품 감상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인에서 운동가로 이동하는 생애 서사의 중간 고리다. 이상경(2018)은 이러한 허정숙을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지향하고 있던” 부인기자로서 “인도 하층민의 삶에 주목하고 전통적인 인도의 풍습을 아름답게 그려낸 ‘여성’ 시인 나이두에 주목했다”고 자리매김하면서, “여성으로서 봉건과 근대에 동시에 저항해

야 하는 의무를 자각하고 있던 식민지의 신여성으로서 허정숙은 인도 여성이 처한 곤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평가한 바 있다. 피식민지 신여성의 공감이라는 이 해석은 허정숙의 나이두 소개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의 위치와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차이를 남성 번역자와 여성 번역자의 본질적 차이로 환원할 수는 없다. 김억과 허정숙은 성별뿐 아니라 문학적 직업성, 정치적 노선, 편집 권한, 번역의 목적과 지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역의 차이를 젠더와 무관한 개인차로만 돌릴 수도 없다. 허정숙의 소개문은 나이두를 ‘여류 시인’으로 호명하고 그의 시를 여성이 봉건과 식민 지배에 동시에 맞서는 삶의 증거로 읽는데, 이 읽기는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라는 허정숙 자신의 위치를 전제로 하며, 같은 호에서 김억이 나이두를 영어 서정시의 저자로 소개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즉 두 번역의 차이는 성별의 직접 효과가 아니라 성별을 포함한 위치의 차이가 매개 형식으로 구현된 것이며, 본고는 이를 젠더화된 위치성이 파라텍스트를 통해 지면에 기입된 사례로 규정한다. 여성 편집주체가 지면에 있을 때 여성 원작자는 작품의 저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애와 정치적 실천을 지닌 주체로 제시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젠더화된 구조의 셋째 층위(형식)에서 확인되는 가장 구체적인 장면이다.

6.4 파라텍스트의 정치학

두 번역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번역문의 어휘보다 파라텍스트에 있다. 김억의 지면은 원제, 작품 구획, 연속 배치를 통해 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허정숙의 지면은 인물 호명, 생애 서술, 시 삽입, 정치적 결말을 통해 작품을 인물의 사회적 의미에 종속시킨다. 다만 이 형식을 시의 종속으로만 읽을 수는 없다. 이상경(2018)은 허정숙의 글이 “짙막하고, 단발성이었지만 나이두를 여성 시인과 여성 정치가로 분절시키지 않고 나이두의 시 세계의 핵심을 감지했다”고 평가한다. 본고의 구분은 두 지면의 우열이 아니라 매개 형식의 차이에 주목한다. 동일한 원작자가 한 호 안에서 세계시의 저자와 식민지 여성운동의 상징이라는 두 얼굴로 나타난 것이다. 서정시인 나이두(1922년 김억의 첫 번역 이래)와 운동가 나이두(1924년 11월 『개벽』의 민태

홍 소개)라는 두 표상은 개벽사 매체군 안에서 이미 병존하고 있었고, 1925년 9월호의 병치는 이 두 계보가 한 지면에서 만난 장면이었다(이상경, 2018). 서정시인과 민족주의자의 결합이라는 이 긴장은 영어권의 나이두 연구가 반복해서 확인해 온 것이기도 하다(Alexander, 1985; Reddy, 2010). 1925년 9월의 『신여성』 지면은 그 긴장을, 한 호 안에 병치된 두 번역의 파라텍스트 형식 차이로 가시화했다. 이 병치는 번역이 원문의 이동만이 아니라 원작자 자체를 새롭게 분류하고 독자에게 제시하는 매체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이 병치가 왜 하필 인도 시인을 통해 일어났는가라는 물음도 함께 제기해 둘 만하다. 이상경은 조선의 나이두 수용을 논하면서 “서구가 인도 여성에 대해 취한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에서는 애당초 성립하기 어려운 요소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상경, 2018, p. 191). 조선의 소개자들은 나이두를 서구가 인도를 내려다보던 자리에서 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자국의 시인으로 삼을 수도 없었다. 신여성 현상 자체가 영국 일본 인도 중국을 관통한 세계적 현상이었다는 점(김수진, 2006b)까지 고려하면, 또 하나의 피식민지에서 온 여성 시인은 여성의 문제와 식민지의 문제를 함께 놓고 말할 수 있는 드문 자리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1925년 9월호의 두 나이두는 그 자리를 서로 다르게 점유한 결과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한 호의 두 지면에서 끌어낸 해석이므로, 검증된 결론이 아니라 후속 연구를 위한 가설로 제시한다.

7. 결론

본고는 『부인』 『신여성』 85호에서 확인한 번역물 150건, 실작품 121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여 번역자와 원작자의 젠더, 장르, 시기, 지면 배치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서론에서 제시한 젠더화된 구조의 세층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현의 층위에서, 여성역자의 번역 14건(9.3%)은 시 장르에서 11건(26.8%)으로 높았으나 사실상 두 차례의 묶음 기획에 몰려 있었고, 여성 원작자의 텍스트는 중기 16건에서 후기 2건으로 줄었다. 여성의 번역

참여와 여성 원작자의 가시성은 특정 시기와 지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집중은 편집부의 묶음 기획과 여성 편집인력의 참여 시기에 대응한다. 이름의 층위에서, 역자 미확인 35건은 여성 역자 14건보다 많았고 필명은 여성 번역자의 젠더를 지면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형식의 층위에서, 여성 원작자의 텍스트는 독립 작품, 소개문 속 삽입, 요약이라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제시되었으며, 1925년 9월호의 나이두는 그 차이가 번역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구조는 두 축을 함께 볼 때 드러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본고는 여성이 번역의 주제로 등장한 조건을 신원(기성 작가, 편집부 소속 기자, 교육기관이 보증한 학생), 장르(시), 지면(편집부가 기획한 묶음 지면), 이름(젠더가 드러나지 않는 필명)의 네 가지로 특정했다. 이는 여성 번역자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는 종래의 진술을, 참여가 허용된 자리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로 바꾸어 놓는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 원작자의 텍스트가 전적으로 여성 번역자의 영역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총계재건수 20건 중 12건, 실작품 17건 중 9건이 남성 번역자를 거쳤고, 여성 번역자가 여성 원작자를 고른 사례는 김명순과 허정숙에 집중되어 두 축의 연결은 젠더 동일성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 있던 여성번역자의 선택이었다. 1925년 9월호의 두 나이두는 이 교차를 한 지면에서 보여준다. 김억은 나이두를 시의 저자로, 허정숙은 시와 정치적 생애가 결합된 인물로 제시했고, 그 차이는 성별의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성별을 포함한 위치의 차이가 매개 형식으로 구현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본고는 그동안 인상적 진술로 반복되어 온 명제, 즉 『신여성』의 번역이 주로 남성에게 의해 생산되었다는 진단을 번역 지면에 한정하여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 가능한 최솟값과 구체적 분포를 함께 제시하였다. 동시에 여성 번역자가 부재했다는 인상을 대신하여, 그들이 어떤 신원과 장르, 지면과 이름의 조건 아래 등장했는지를 사례로 복원하였다.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번역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글이 여전히 많고, 역자 성명이 필명으로만 기재된 글이 많아 필명 귀속과 젠더 판정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여성 역자 14건과 여성 원작자 20건처럼 핵심 범주의 절대 건수가 작아 백분율의 안정성이 낮고, 본고가 확인한 분포

가 여성지에 특유한 것인지는 비교 대상 없이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수치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남은 과제는 네 가지이다. 첫째, 비교 분석이다. 『개벽』 등 동시대 일반 잡지의 번역 지면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야 여성지 번역 지면의 특성이 드러나고, 1930년대 여성지인 『신가정』(1933년 창간), 『여성』(1936년 창간) 등과 비교해야 복간기 『신여성』의 변화가 이때에만의 사정이었는지 여성지 지면 일반의 재편이었는지를 가릴 수 있다. 둘째, 형식의 전수 비교이다. 원작자 젠더에 따라 원제 병기, 저자명 표기, 독립 게재와 삽입의 비율이 실제로 달랐는지를 150건 전체에서 대조하고, 같은 잡지의 창작물과 번역물이 제시한 젠더상을 건주는 작업은 원작자 젠더축의 의미를 검증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셋째, 원본의 서지를 밝히는 데서 나아가 일본어 중역의 경로를 복원하는 일로, 사상과 문학의 번역이 서로 다른 경로를 밟았다는 한기형(2011)의 논의를 여성지 지면에서 검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넷째, 번역문 내부의 어휘와 리듬, 삭제와 첨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다. 본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를 통해 번역사와 여성 문학사에 비워진 자리를 다시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개벽사 편. (2009). 부인 신여성[영인본, 전15권]. 케포이박스.
케포이박스 편집부. (2012). 부인 신여성 16 17[추가발굴 완결편]. 케포이박스.

<2차 자료>

- 강혜경. (2007).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81-116.
구인모. (2004).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여성문학연구, 12, 69-94.
구인모. (2021). 김억의 초기 에스페란토 변(중)역의 함의. 한국시학연구, 67, 261-296.
권오숙. (2012). 성차에 따른 성담론 번역 양상 비교: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번역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55-80.

- 김경연. (2009). 근대문학의 제도화와 여성의 읽고 쓰기: 『신여성』을 중심으로. *코기토*, 66, 97-126.
- 김경일. (2005).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한국문화*, 36, 249-295.
- 김미지. (2024). 아우구스트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를 둘러싼 번역 실천과 젠더 역학. *여성문학연구*, 63, 43-75.
- 김민지. (2022). 근대 전환기 여성 번역가의 등장과 근대적 인식론의 성립: 잡지 『우리의 가뎡』에 연재된 영한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7, 295-316.
- 김수자. (2015). 1920 1930년대 《신여성》 여성기자의 여성담론 구성방식: 허정숙과 송계월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4, 127-155.
- 김수진. (2006a). 신여성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사회*, 69, 255-284.
- 김수진. (2006b). 신여성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1), 185-230.
- 김연숙. (2005).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탄생: 1920~30년대 여기자 집단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4, 89-119.
- 김연숙. (2022). 근대 여학생의 문학 열망과 감정공동체의 형성: 잡지 『신여성』에 나타난 독서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1, 183-209.
- 김윤선. (2012). 번역 텍스트의 젠더화와 여성의 모더니티: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143-179.
- 김은규. (2019). 일제강점기 근대 언론인들의 필명 유형과 필명 사용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19(4), 78-110.
- 김자경. (2023). 근대 전환기 여성 번역가 김명순의 「相逢」 번역: 작품 선택과 번역 방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4), 9-36.
- 김효순. (2018). 카렐 차페크의 「R.U.R」 번역과 여성성 표상 연구. *일본문화연구*, 68, 95-111.
- 박금숙, 홍창수. (2012). 두 작가를 동일인물로 혼동한 문학사적 오류. *한국 아동문학연구*, 23, 5-64.
- 박선주. (2012). (부)적절한 만남: 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안과밖*, 32,

289-315.

- 박지영. (2012). 위태로운 정체성, 횡단하는 경계인: ‘여성번역가/번역’ 연구를 위하여. 여성문학연구, 28, 9-54.
- 서정자. (2004). 콜론타이즘의 이입과 신여성기획: ‘지식인여성노동자’ 등장과 ‘주의자연애’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2, 7-35.
- 신남주. (2011). 조선 신여성의 『세이토(靑鞵)』 수용의 영향과 성격: 『신여자』의 발간과 ‘신여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20, 129-149.
- 신혜수. (2016). 김명순의 하우스프트만 문화번역 연구: 「돌아다볼 때」와 「외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69, 175-199.
- 안미경. (2013).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 167-212.
- 이상경. (2010). 『부인』에서 『신여성』까지: 근대 여성 연구의 기초자료. 근대서지, 2, 146-188.
- 이상경. (2018). ‘식민지 조선’의 맥락에서 읽은 인도 시인 사로지니 나이두. 어문학, 140, 189-216.
- 이소희. (2015). ‘나’에서 ‘우리’로: 허정숙과 근대적 여성주체. 여성문학연구, 34, 89-148.
- 이혜진. (2008). 『여자계』 연구: 여성필자의 근대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장미영. (2012). 번역을 통한 근대 지성의 유통과 젠더 담론: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8, 205-237.
- 장이지. (2011). 한국 초현실주의 시의 계보. 보고서.
- 장인수. (2007). 한국 초현실주의 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정용서. (2015a).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145-186.
- 정용서. (2015b).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 실학, 57, 225-260.
- 태혜숙. (2013).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에 대한 탐색. 젠더와문화, 6(1), 83-107.
- 한기형. (2005). 식민지 검열체제의 역사적 성격: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

- 민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51, 69-105.
- 한기형. (2011). 중역되는 사상, 직역되는 문학: 『개벽』의 번역관에 나타난 식민지 검열과 이중출판시장의 간극. 아세아연구, 54(4), 65-85.
- 小林愛雄. (1912). 近代詞華集 [근대 시선집]. 春陽堂.
- 樋口紅陽. (1921). 海のかなたより: 西洋訳詩 [바다 너머에서: 서양 번역시]. 文獻社.
- 山出裕子. (2008). 「トランスレーション理論」による明治女性翻訳文学の発見 [‘번역 이론’에 의한 메이지 여성 번역문학의 발견]. ジェンダー研究, 11, 125-135.
- Alexander, M. (1985). Sarojini Naidu: Romanticism and resistan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0(43), WS68-WS71.
- Batchelor, K.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Routledge.
- Genette, G.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J. E. Lewin,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Godard, B. (2021). *Translation, semiotics, and feminism* (E. C. Karpinski & E. Basile, Eds.). Routledge.
- Marx, E. (2004). *The idea of a colony: Cross-culturalism in modern poet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Reddy, S. (2010). The cosmopolitan nationalism of Sarojini Naidu, nightingale of India.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38(2), 571-589.
- Simon, S. (1996).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mission*. Routledge.
- Snaith, A. (2014). *Modernist voyages: Colonial women writers in London, 1890-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nce, L. (1915). *Hero tales and legends of the Rhine*. George G. Harrap & Co.
- Spivak, G. C. (1993). The politics of translation. In G. C. Spivak (Ed.),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pp. 179-200). Routledge.
- von Flotow, L. (1997).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St. Jerome Publishing.

〈부록 1〉 연재 작품 목록

번호	작품/원작	역자	게재 시기	회차
1	가극 「서상기」	현희운	1922.6~7	2
2	「푸시케 색시의 이약이」	방정환	1922.8~9	2
3	「내여버린 아해」	방정환	1923.1~2	2
4	베벨 『여성과 사회주의』 초역 연작	양명(研究生 귀숙)	1925.5~9	4
5	「유물사관으로 본 부녀의 사회적 지위」	양명	1926.3~5	3
6	「시베리아 각민족의 결혼형식」	손진태	1926.1~5	4
7	「영혼 바든 언어」	이교월/이화룡	1926.5~9	4
8	「나의 맹학교 생활」	미상	1925.8~9	2
9	「문어지령으로 쌓는 탑」	박영희	1925.11~1926 .1	2
10	「호랑이의 꿈」	박영희	1926.3~4	2
11	「정조」	이경손	1926.2~3	2
12	「양성어록」	양주동	1925.1 9	2
13	「아기가 본 세상」	이헌구	1933.6~1934. 4	7
14	하우프 동화 「대상」 연작	赤頭巾(미상)	1934.1~6	5

〈부록 2〉 전체 번역 작품 목록

번호	작품 제목	역자	게재 시기
1	가극 서상기(歌劇 西廂記)	玄哲(현희운)	『부인』1922.6
2	가극 서상기(歌劇 西廂記)	玄哲(현희운)	『부인』1922.7
3	푸시케 색시의 이약이(1)	小波(방정환)	『부인』 1922.8
4	귀한 자녀를 두신 어머니에게	一記者	『부인』 1922.8

번호	작품 제목	역자	게재 시기
5	푸시케 색시의 이약이(2)	小波(방정환)	『부인』 1922.9
6	옛말 어머니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진경	리生	『부인』 1922.10
7	나파룬이 그 안해에게 주는 편지 두장	一記者	『부인』 1923.1
8	세계명작동화 재미있는 이약이_내어버린 아해	小波(방정환)	『부인』 1923.1
9	세계명작동화 재미있는 이약이_내어버린 아해(續)	小波(방정환)	『부인』 1923.2
10	세계명작동화 재미있는 이약이_의조혼 내외	小波(방정환)	『부인』 1923.5
11	「알렉산더」대왕을 매도하던 빌영뱅이 대학자	유영구	『부인』 1923.5
12	생각남	李在根	『부인』 1923.6
13	初恨	李在根	『부인』 1923.6
14	長太息	李在根	『부인』 1923.6
15	貞操	李在根	『부인』 1923.6
16	最後의願	李在根	『부인』 1923.6
17	이 試驗에 及第만 하면 그는 智能 完全한 어린이	김기전	『부인』 1923.7
18	人子와 猫子	金石松(김형원)	『신여성』 1923.11
19	세계적 대왕의 테니스 잘 치게 되는 법·열 가지 조목	W生	『신여성』 1923.11
20	독일의 신녀자 스라버 녀사	김동성	『신여성』 1924.2
21	바다에 가려고	김명순	『신여성』 1924.2
22	鄉愁	김명순	『신여성』 1924.2
23	물거말이	김명순	『신여성』 1924.2
24	夕映의 淸光을 불너서	김명순	『신여성』 1924.2
25	夜半	김명순	『신여성』 1924.2
26	자미있는童話 테부와 굴스독새	소파(방정환)	『신여성』 1924.2

번호	작품 제목	역자	게재 시기
27	줄닌머리	유지영	『신여성』 1924.2
28	汽笛	朱金星(주요섭)	『신여성』 1924.4
29	五月女王	李亭雨	『신여성』 1924.5
30	인형의 家	SP생(방정환)	『신여성』 1924.5
31	海夫人	SP생(방정환)	『신여성』 1924.5
32	어느 젊은 너자의 맹서	몽건초(방정환)	『신여성』 1924.5
33	동화 삼태성	小波(방정환)	『신여성』 1924.5
34	끼리샤 神話 해침의 사랑	星園	『신여성』 1924.6
35	자유의지로 결혼하려는 처녀에게	미상	『신여성』 1924.6
36	傳説奇話 라인美話-流浪의音樂家	고한승	『신여성』 1924.7
37	女子와戀愛와結婚과 기타-체호프의 手帖에서	미상	『신여성』 1924.8
38	라인전설 로-레라이	고한승	『신여성』 1924.8
39	여학생극 리아왕과 그 딸들(2막)	미상	『신여성』 1924.8
40	라인전설 사랑과 맹세	고한승	『신여성』 1924.10
41	불-라의 꽃가지	고한용	『신여성』 1924.11
42	로-자의 犧牲 - 佛國美談, 巴里的 花	抱宇	『신여성』 1924.12
43	코코, 코코, 시원한 코코입니다	박영희	『신여성』 1924.12
44	新婚의 歌-「樂劇 로-앵그링」一節	한병도	『신여성』 1924.12
45	告白	조춘광	『신여성』 1925.1
46	兩性語錄	주동생(양주동)	『신여성』 1925.1
47	斷腸	이상화	『신여성』 1925.1
48	왁네르의 작품 其一 護民官리엔지	이은상	『신여성』 1925.1
49	눈 오는 밤	주동(양주동)	『신여성』 1925.5
50	거-지	주동(양주동)	『신여성』 1925.5
51	婦人의智의能力 -解放史의一理論-	研究生(양명)	『신여성』 1925.5
52	結婚때문의教育	研究生(양명)	『신여성』 1925.6
53	失戀한 男女(Edwin and Angelina)	房生	『신여성』 1925.6

번호	작품 제목	역자	게재 시기
54	라인 美話 로-헨그린	고한승	『신여성』 1925.8
55	男女의生理的及心の素質の差異	研究生(양명)	『신여성』 1925.8
56	月夜	懷山	『신여성』 1925.8
57	나의盲學校生活 -지나간날의나잘은이야기-	미상	『신여성』 1925.8
58	나의 맹학교 생활	미상	『신여성』 1925.9
59	女性을中心으로한社會相의史의變遷	허정숙	『신여성』 1925.9
60	男女의生理的心理의差異	研究生(양명)	『신여성』 1925.9
61	兩性語錄(其二)	주동생(양주동)	『신여성』 1925.9
62	印度의女詩人 사로지니 나이두의詩 가을노래(Autumn Song)	고사리(김억)	『신여성』 1925.9
63	숲안에서(In the Forests)	고사리(김억)	『신여성』 1925.9
64	베짜는이들(Indian Weavers)	고사리(김억)	『신여성』 1925.9
65	輜軍들(Palanquin-Bearers)	고사리(김억)	『신여성』 1925.9
66	라인江의傳說神話 로-레리어의 시가	SKY(허정숙)	『신여성』 1925.9
67	薔薇와詩人	K · K생	『신여성』 1925.9
68	大印度의精華 女流詩人사로지니 · 나이두女史	스카이(허정숙)	『신여성』 1925.9
69	어엿븐處女역	미상	『신여성』 1925.9
70	두 가지의 見聞에서	曉路	『신여성』 1925.9
71	무서운 코	이찬희	『신여성』 1925.10
72	영원히 사는 사람	주요섭	『신여성』 1925.10
73	아이다의 꽃	미상	『신여성』 1925.10
74	瞬間	曉路	『신여성』 1925.10
75	무덤의 사랑	錦園	『신여성』 1925.11
76	未來의 女性이 되여라	SKY(허정숙)	『신여성』 1925.11
77	兩性美의 解剖	性學博士	『신여성』 1925.11
78	문어지령으로 쌓는 塔	박영희	『신여성』 1925.11
79	파리의 밤	이상화	『신여성』 1926.1

번호	작품 제목	역자	게재 시기
80	西伯利亞 各民族의結婚型式	손진태	『신여성』 1926.1
81	떠러지령으로 쌓는 塔	박영희	『신여성』 1926.1
82	人造人間에 나타난 女性	박영희	『신여성』 1926.2
83	貞操	이경손	『신여성』 1926.2
84	새로운 동무	리상화(이상화)	『신여성』 1926.2
85	호랑이의 꿈(其一)	栢烽(박영희)	『신여성』 1926.3
86	貞操	이경손	『신여성』 1926.3
87	世界珍奇한結婚形式 西伯利亞各民族의結婚型式 (其二)	손진태	『신여성』 1926.3
88	婦女の 社會的 地位 -唯物史觀으로 본 婦女の 社會的 地位(1) -	양명(梁明)	『신여성』 1926.3
89	男女關係의 歷史的 變遷 -唯物史觀으로 본 婦女の 社會的 地位(2) -	양명(梁明)	『신여성』 1926.4
90	호랑이의 꿈 (承前)	栢烽(박영희)	『신여성』 1926.4
91	통구스族과알타이族의結婚式 西伯利亞各民族의結婚型式 (其三)	손진태	『신여성』 1926.4
92	未來社會의男女關係- 唯物史觀으로본婦女の社會的地位 (其三)	연경학인(燕京 學人)(양명)	『신여성』 1926.5
93	西伯利亞各民族의結婚型式 (其四)	손진태	『신여성』 1926.5
94	靈魂바든人魚	孤月(이고월)	『신여성』 1926.5
95	靈魂 바든 人魚(二)	孤月(이고월)	『신여성』 1926.6
96	靈魂 바든 人魚(三)	孤月(이고월)	『신여성』 1926.8
97	靈魂 바든 人魚	孤月(이고월)	『신여성』 1926.9
98	추억 (원명 IMME SEE)	거울꽃	『신여성』 1931.1
99	男子無用論	안광호	『신여성』 1931.1
100	늙은 할미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2
101	바위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2
102	마즈막會見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2

번호	작품 제목	역자	게재 시기
103	祈禱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3
104	싸호자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3
105	來日! 來日!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3
106	늪은이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3
107	滿足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3
108	거지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3
109	제로니모와 그의 兄-世界名作巡禮	蛾眉	『신여성』 1931.4
110	바다가에서	김안서(김억)	『신여성』 1931.4
111	四月의 노래	이하운	『신여성』 1931.4
112	두篇의 便紙	최병화	『신여성』 1931.6
113	條件附戀愛	손기문	『신여성』 1931.8
114	錯覺된遊戲	최병화	『신여성』 1931.9
115	플랜더-쓰戰地	박길래	『신여성』 1932.4
116	鎮魂歌	최기득	『신여성』 1932.4
117	無題	장금선	『신여성』 1932.4
118	깨여저라 오!바다여	이달남	『신여성』 1932.4
119	세 그림자	김수임	『신여성』 1932.4
120	兩性語錄	미상	『신여성』 1932.5
121	同情	윤석중	『신여성』 1933.3
122	종이배	윤석중	『신여성』 1933.3
123	참파꽃	윤석중	『신여성』 1933.3
124	不滅의 像	이동원(이일)	『신여성』 1933.5
125	두 王國의 王	김광섭	『신여성』 1933.6
126	아기가 본 세상	이헌구	『신여성』 1933.6
127	아기가 본 세상(2)	이헌구	『신여성』 1933.7
128	예브게니 · 아네-긴	함대훈	『신여성』 1933.8
129	아기가 본 세상(3)	이헌구	『신여성』 1933.9
130	아기가 본 세상(4)	이헌구	『신여성』 1933.10

번호	작품 제목	역자	게재 시기
131	世界名作小説行脚1 나나	이정호	『신여성』 1933.10
132	世界名作小説行脚1 幽靈	이정호	『신여성』 1933.10
133	世界名作小説行脚2 이눅크 아-덴	이정호	『신여성』 1933.11
134	世界名作小説行脚2 싘트밍고-의 新婦	이정호	『신여성』 1933.11
135	느진가을	사우춘(史又春)	『신여성』 1933.12
136	電氣廣告	미상	『신여성』 1933.12
137	조고만 大悲劇	남강춘(南江春)	『신여성』 1933.12
138	거리의 插話	미상	『신여성』 1933.12
139	세계명작소설행각3 春姬	이정호	『신여성』 1933.12
140	아기가 본 세상	이헌구	『신여성』 1934.1
141	하우푸의 童話-隊商	赤頭巾	『신여성』 1934.1
142	아기가 본 세상(8)	이헌구	『신여성』 1934.3
143	하우푸의 童話-隊商 (제2회) 幽靈船 - 아하메트노인의 이야기 -	赤頭巾	『신여성』 1934.3
144	구름과 물결	윤석중	『신여성』 1934.3
145	『마스네』의 엘레지	하윤(이하윤)	『신여성』 1934.4
146	하우푸의 童話-隊商 (제3회) 팔을 잘린 이야기	赤頭巾	『신여성』 1934.4
147	아기가 본 세상	이헌구	『신여성』 1934.4
148	하우푸의 童話-隊商 (제4회) 파토메를 구한 이야기	赤頭巾	『신여성』 1934.5
149	로미오와 줄리엣	이명애	『신여성』 1934.6
150	하우푸의 童話-隊商 (제5회) 난쟁이 묵크	赤頭巾	『신여성』 1934.6

Translating women and translated women — The gendered structure of translation practice in *Buin* and *Sinyeoseong* —

Kyung-Ae Youn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constructs a database of 150 translation items, representing 121 distinct works, found in the 85 extant issues of *Buin* (*Woman*, 1922–1923) and *Sinyeoseong* (*New Woman*, 1923–1934), two women's magazines issued by Gaebyeoksa. The i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ranslator gender, author gender, genre, period, page placement, and paratext. The study asks two overarching questions: who translated and who was translated. It conceptualizes the "gendered structure" of the translation pages as an uneven distribution of gender across three dimensions: visibility, naming practices, and textual form. Women translators account for only 9.3 percent of the corpus (14 items), although their share rises to 26.8 percent in poetry (11 items). These 14 items fall into three types: an established writer (Kim Myeong-sun), a staff reporter (Heo Jeong-suk), and college students (the one-off "Ewha Poetry Album" of 1932). Their participation was largely enabled by editorially organized features, and some translations appeared under pen names that obscured the translator's gender. Works by women authors reached 20.0 percent in the middle period and declined to 3.8 percent after publication resumed; moreover, 60.0 percent of these works were translated by men. The contrasting translations of Sarojini Naidu by Kim Eok and Heo Jeong-suk in September 1925 further show how professional status, editorial authority, and translational form could shape different paratextual representations of the same woman author. Restricting its claims to cases that can be securely verified from the surviving issues, the article argues that these translation pages functioned as a mediating space in which women's voices and representations of women were selectively presented, organized, and recontextualized.

Keywords: *Sinyeoseong*, *Buin*, women translators, women source authors, gender and translation, Kim Myeong-sun, Heo Jeong-suk, Sarojini Naidu
키워드: 신여성, 부인, 여성 번역가, 여성 작가, 젠더와 번역, 김명순, 허정숙, 사로지니 나이두

윤경애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객원교수
yka9511@ynu.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